

세이머스 딘의 『어둠 속 읽기』에 감춰진 문학의 정치

안 명 덕

우리의 정치와 우리의 문학을 포함한 모든 것은 다시 써지고, 즉 다시 읽혀야 한다. 그것이 아일랜드성에 오염되지 않으나, 분명히 아일랜드적인 새로운 글 쓰기, 즉 새로운 정치를 가능케 할 것이다. (Deane, "Heroic" 56)

I

신비평(New Criticism)이 등장하면서 작품 중심의 분석과 이해가 비평연구의 주를 이루자, 지금껏 비중 있게 다뤄진 작가의 중요성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학작품이 작가의 창작자로서의 권위와 그녀의 삶에 달라붙어있는 사회문화 그리고 역사적 맥락의 흔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강박적으로 정치적 평가의 잣대가 휘둘러지는 현실에서 피어난 피식민지문학처럼 작가의 각오에 의해 작품이 창작되는 경우에는 작가를 배제하고 작품에 대한 적절한 비평이 이뤄질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오랫동안 제3세계와 다를 바 없는 피식민지를 겪었고, 그 여파가 내재된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세이머스 딘(Seamus Deane)의 『어둠 속 읽기』(*Reading in the Dark* 1996)를 작가의 역할과 장르의 기능을 고려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어둠 속 읽기』는 북아일랜드의 제 2도시인 데리(Derry)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곳 출신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던의 첫 소설작품이다. 이 작품은 일인칭 소설로서, 작가 던을 연상시키는 익명의 일인칭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큰아버지 에디(Eddie)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추적하고, 이 과정에서 그의 가족사에 얽힌 비밀과 가톨릭계 공동체의 실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 된다. 정치를 알기에는 어린 화자가 탐정놀이를 하듯이 이야기를 진행하기 때문인지 기존의 비평가들은 이 작품을 일인칭 소설이 갖고 있는 이야기의 진실유무나 북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피식민지문학이라는 사실보다는, 화자의 회상 혹은 고백에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스티븐 리건(Stephen Regan)은 이 작품을 현대 아일랜드문학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자서전 또는 회고록 형태의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장소와 시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아일랜드의 현대사를 정치적이지만 않게 이야기한다고 평가 한다(Regan 233). 작품의 화자는 자신을 포함한 가족사를 통해 데리에서 살고 있는 영국계 신교도와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가 그들이 살고 있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만이 아니라, 인종, 역사, 문화, 종교 그리고 정치경제 등의 비 물리적 요소들까지 단절되어 있는 현실을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영국의 식민지배가 데리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특정한 정치 성향이나 구호 그리고 정치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리건은 이러한 화자의 서술적 특성을 근거로 『어둠 속 읽기』를 비정치적이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한다.

로버트 보이어스(Robert Boyers)도 이 작품이 반드시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 북아일랜드의 현대사를 정면으로 다루지만, 리건과 유사하게 화자가 정치 이데올로기에 잠식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이 작품의 화자가 데리에서 살아가는 아일랜드인의 일상을 이야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정치에 의해 완전히 잠식된 등장인물의 삶을 허용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평가하면서 이 작품을 비정치적 작품으로 평가한다(Boyers 25).

이처럼 작품의 서술형식에 초점을 맞춘 비평가들의 견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화자의 연령이나 혹은 그의 가족사가 이야기된다는 이유로 『어둠 속 읽기』를 정치색이 옅다고 평가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 비평가들은 이 작품이 아일랜드 공화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IRA(Irish Republican Army)를 통

해 격렬한 반영 투쟁이 일어난 아일랜드의 뒤틀린 역사를 내재한 북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피식민지문학이고,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영국과 신교도계 아일랜드인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체화된 딘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견해는 화자가 자서전적 소설로 재창조한 북아일랜드로 독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들은 『어둠 속 읽기』가 정치적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뿐, 화자의 이야기로 독자를 목격자로 초대해서 북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식민지배가 갖고 있는 부당성과 이에 저항하는 IRA에 대한 정당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딘의 의도가 작동하는 정치적 성격이 다분한 작품임을 간고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신비평적 경향에서 벗어나 『어둠 속 읽기』를 작가의 역할을 반영하여 읽고, 이를 통해 이 작품이 비정치적이라는 기존의 비평과는 다르게 딘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정치소설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딘의 문학 및 문화 활동과 비평을 통해 그의 아일랜드 문학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입장을 확인하고, 이것이 작품 화자의 고백 혹은 회상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북아일랜드의 가톨릭계 아일랜드인의 과거와 현재를 독자에게 환기시킴으로써 실현되고 있음을 입증할 것이다.

II

작가를 이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해당 작가의 작품을 직접 분석하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문학일반 또는 민족 혹은 국가처럼 그녀가 속한 역사문화적 집단의 문학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특히 작가가 피식민지 출신인 경우에는 해방과 독립 아니면 탈식민주의라는 집단의 분명한 정치적 목표가 요구되는 후자의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작가 딘을 이해하기 위해 아일랜드 문학에 대한 그의 이해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무리가 아니다.

딘은 아일랜드 문학을 아일랜드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수단으로 이해한다. 그는 아일랜드인을 동일한 언어와 종교를 비롯한 문화적 요소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가톨릭 아일랜드인으로 제한해서 인식한다. 그래서 그는 아일랜드

드 문학을 가톨릭 아일랜드인의 삶을 다룬 뿐 아니라, 아일랜드 민족의 정치적 입장을 선전하거나 대변해서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제한해서 규정한다. 그래서 딘이 구상하는 아일랜드 문학과 그의 작품에는 등장인물과 관련된 서정적이거나 낭만적인 내용이나 분위기를 갖춘 경우를 찾기 어렵고, 설사 있더라도 그 작품을 특정 인물의 개인사로 한정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적 원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딘의 경우처럼 작가 혹은 지식인이 아일랜드의 민족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집단성을 강조하려는 노력은 과거에도 있었다. 대니얼 코커리(Daniel Corkery)는 문예부흥운동을 통해 20세기 초 아일랜드인의 처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아일랜드인의 사고방식은 어디나 끝없는 변화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흔들리는 재수 없는 놈”이자 “영국인도 아닌, 아일랜드인도 아닌, 영국계 아일랜드인도 아닌” 존재로 규정한다(Kiberd 555). 이러한 평가는 아일랜드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지만, 독립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민족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아일랜드인 스스로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다는 코커리의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치 노신(Lu Xun)이 『아큐정전』(*The True Story of Ah Q* 1922)을 통해 열강들의 식민지배를 받는 청나라인의 각성을 촉구하듯이, 코커리는 독립에 있어 민족적 자각과 각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아일랜드인의 민족정체성을 냉정하게 규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민족 정체성이라는 동일한 과제를 위해 집단성을 강조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코커리와 딘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딘은 코커리를 비롯한 문예부흥운동가들의 노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가톨릭계 아일랜드인을 중심으로 탄생한 새로운 아일랜드 민족정체성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기준에 맞는 새로운 아일랜드 문학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는 19세기부터 20세기 사이에 일어난 다양한 아일랜드 문화운동들을 일컫는 켈트 부흥운동(The Celtic Revivals)을 “유럽 낭만주의 역사의 일부”로(Deane, *Celtic* 13) 평가하면서, 이 운동이 아일랜드의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일랜드의 문화운동은 근대 민족주의가 휘몰아치던 19세기 유럽에서 이를 문학, 예술, 음악, 민족

지학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뒷받침하던 낭만주의적 문예사조의 영향을 받은 아일랜드의 지식인들에 의해 진행된다. 그래서 이 운동은 아일랜드의 근대화와 독립보다는 고대 켈트 문화를 근거로 아일랜드 민족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측면이 강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딘으로서는 대륙에서는 낭만주의 사조가 민족국가 형성의 기틀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지만, 독립이라는 민족의 당면 과제가 남아있는 아일랜드에서 과연 이 사조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딘은 문예부흥 운동이 시작된 이후부터 20세기 후반까지의 거의 모든 아일랜드 작가들은 “정치적 작가로 자신 있게 묘사 될 수 없는” 존재로서, “아일랜드 민족주의 발전 속에서” 이들이 갖고 있던 아일랜드에 대한 인식은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도덕적 열정”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열정이었을 뿐이라고 저평가한다(*Celtic* 14-15).

북아일랜드의 피지배층을 이루는 가톨릭계 출신의 딘에게 신교도 아일랜드인은 이곳을 식민지배한 그들의 선조와 다를 바 없는 ‘영국인’일 뿐, 자신과 같은 아일랜드인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래서 딘이 신교도 아일랜드 작가와 지식인이 주도한 문예부흥운동을 통해 구축된 아일랜드의 민족정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판단에 앞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딘은 문예 부흥 운동을 이끈 영국계 아일랜드인 에이츠(William Butler Yeats), 싱(John Millington Synge)와 오케이시(Sean O’Casey)를 “아일랜드와 영국, 아일랜드와 앵글로 아일랜드, 가톨릭과 신교 등의 정체성의 대립 속에 사로잡힌” 작가들이고, 이들의 작품은 “분명히 아일랜드적이지만 동시에 아일랜드적으로 정의 될 수 없다”고 냉정히 비판하면서 이들과의 결별을 분명히 한다(*Celtic* 15-16).

그렇다면 가톨릭계 아일랜드인 작가나 이들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면 딘이 지향하는 아일랜드 문학에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가? 조이스에 대한 딘의 평가를 고려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딘은 가톨릭계 아일랜드인 조이스를 “망명”(Exile)이라는 “고상한 문화형태의 이민”를 실천한 자로서 아일랜드의 역사를 “단선적이거나 순환적인 방식”이 아니라, “동시적인 공간, 복수적 그리고 현존 속에 던져진” 다원적 사고를 한다고 비판 한다(Deane, “The Production” 134).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딘은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1916)의 화자인 스티븐(Stephen)에 대해서도 “그 자신의 고국에서 여행자가 된 귀족적인 예술가이자 작가”로서 아일랜드의 현실과는

괴리된 채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인물로 평가한다(Deane, “The Production” 144). 결국 딘은 가톨릭계 아일랜드인으로서 동일한 종교와 문화 그리고 역사배경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일랜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작가의 삶과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지 살피고 이것의 유무를 아일랜드 문학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중대한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아일랜드에 대한 딘의 애착은 이곳이 아일랜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적 요소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조이스처럼 주변인의 처지에 있는 지식인이나 수많은 해외이주자들에게 대한 경멸이나 증오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어둠 속 읽기』의 “미국 도시들”(American Cities)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통해 확인된다. “미국 도시들”에서 일인칭 화자는 그의 아버지 프랭크(Frank) 그리고 삼촌들과 함께 시카고(Chicago),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등 미국의 도시들을 화재로 이야기한다. 이 대화중에 화자는 자신이 시카고를 “보려는 마음이 간절했다”고 밝히고, 댄(Dan) 삼촌은 데리를 “우울한 구멍”(Godforsaken hole)로 표현하면서 열기라도 느끼도록 “증발 폭탄”(evaporator bomb) 투하를 원하는 등,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북아일랜드의 현실을 이야기한다¹⁾(37). 또한 이들은 미국의 시카고에 머물고 있다는 믿는 에디와 맥클레니(McIlhenny)를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는데, 에디가 살해당하고 이 비극에 맥클레니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프랭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할 뿐, 이 사실에 대해 침묵 한다(Deane, *Reading* 36-38). 이들의 대화 속에서 미국의 시카고는 마친루의 도시이자 미지의 곳으로 인식되는 반면에 데리는 떠난 이들이 방문은 고사하고 소식조차 전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의 도시로 이야기된다. 아일랜드인에게 미국은 답답한 본국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미지의 대안이자 탈출구로 이해되면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아일랜드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딘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딘은 특정 민족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집단적 정서와 기억을 제공하는 문학의 특성을 활용해서 낭만주의에 경도된 문예운동이 이끌던 아일랜드 문학을 가톨릭 아일랜드인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그가

1) Deane, Seamus. *Reading in the Dark*. 앞으로는 이 책의 인용은 괄호 안에 쪽 수로 표시한다.

새로운 민족 문학을 토대로 민족 정체성을 재구축해서 아일랜드의 독립과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민족문학의 재구성에 대한 딘의 활동은 그가 1980년 북아일랜드 데리에서 창단 된 이후 지금까지 깊이 관여하고 있는 극단이자 문화운동집단인 필드 데이(Field Day)를 중심으로 구체화된다. 문학 활동과 관련해서 필드 데이는 “특히 예이즈와 조이스”를 비롯한 아일랜드 근대 문학과 정치적 담론과 이론 등에 내재된 “압제와 해방의 다양한 수사법을 분석”하고, 기존의 연극 작품을 그들의 시선으로 “번역”해서 무대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Deane, “Introduction” 14-15). 그리고 이 집단은 “완전히 단일한 전통 혹은 여러 전통의 혼합체”로 새롭게 정리된 『필드 데이 아일랜드 작품선집』(*The Field Day Anthology of Irish Writing*)을 출간하면서 아일랜드 문학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운다(“Introduction” 14-15). 이러한 필드 데이의 활동은 레닌(Vladimir Il'ich Lenin)이 멘셰비키(Mensheviks)를 “막대를 한 방향으로 구부렸던 경제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막대를 올바로 펴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이를 구부릴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영국계 작가와 지식인에 의해 구부러진 민족문학을 진정한 아일랜드인에 의해 “올바로 펴기 위한” 일종의 막대 구부리기와 같은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Lenin 27).

한편 문학이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딘의 인식은 정치적 상황이 삶의 지배적 조건을 이루는 피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그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다. 그의 고향인 데리는 영국의 식민주의로 인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백 분리정책만큼이나 신교와 구교를 믿는 아일랜드인 사이에 발생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분단이 일상화된 곳이다. 이곳의 피지배계급의 처지에 있는 가톨릭계 아일랜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에게 정치란 정부와 국회라는 합법적인 정치기관에서 정치인으로 불리는 특정한 이들에게 한정된 행위가 아니라, 두 집단 사이에 갈등과 반목, 그리고 폭력이 무비판적으로 혼용되고 자행되는 일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딘의 인식을 반영하듯 『어둠 속 읽기』의 화자인 소년에게 데리는 신교도와 가톨릭교도 사이의 불신, 분노, 적대감 그리고 복수를 상징하는 “모닥불”(31)의 도시로 이해된다. 신교도들은 매년 1690년의 보인 전쟁(The Battle of Boyne)과 1689년의 데리 공성전(The Siege of Derry)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모닥불을 피우고, 이에 대응해서 가톨릭교도들은 평범한 교회축제의 모닥불 행사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기념한다(31). 또한 화자가 살고 있는 가톨릭 아일랜드인

거주지역의 황폐함과 절망을 상징하듯 동네 중심에 불탄 채로 방치된 양조장은 과거 IRA 대원들이 끝까지 저항하다가 몰살된 뒤 폭발로 인한 화재로 불타버린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패배의 모닥불만이 아니라, 과거 성 패트릭 기념일 날 가톨릭교도들의 행진을 막으려는 경찰과 영국의 B 특수부대(B-Specials)에게 매복공격을 가해서 경찰차를 불태우는 승리의 불도 함께 타오른다(34-35). 이처럼 불은 “우울한 대기와 거리를 흥분시키고 흥분하도록 탈바꿈시켜서”(31) 우울한 데리에 활력을 불어 넣고 동시에 소년이 가톨릭 아일랜드인이라는 자기정체성을 경험을 통해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결국 모닥불은 『어둠 속 읽기』에서 독립과 통일이라는 당면한 아일랜드의 정치적 목적과 이를 위해 요구되는 아일랜드 민족 정체성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딘의 인식을 반영한 객관적 상관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처럼 문학에 의한 정치를 시도한 딘은 특정 민족에게 시대적 근간을 제공하면서 동질감을 획책하는 역사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특히 그는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비판하는 수정주의(Revisionism)를 비판하는데 날을 세운다. 1950년대 아일랜드의 역사연구 분야에 유럽의 근대 민족 국가 형성의 근간이 된 민족주의의 인위성과 허구성,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폭력성을 경계하는 역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인식이 등장한다. 딘은 이 새로운 역사관이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식민 지배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숨겨진 제국주의”(the concealed imperialism)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이데올로기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Introduction” 19). 아일랜드의 독립과 통일을 지향하는 딘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족주의를 “유령”(“Introduction” 7)처럼 실체가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만드는 이 역사관을 지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던 것이다.

헬린(Kevin Whelan)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수정주의 역사관은 무디(T. W. Moody)와 에드워즈(R. D. Edwards)가 “기록에 근거한 연구에 헌신하고 과학적 목적론의 이름으로 민족주의의 신화에 의식적으로 반대하는 역사학자들”을 위해 “아일랜드 역사연구”(Irish Historical Studies)라는 저널을 발간하면서 시작된다 (Whelan 184). 무디는 당시 아일랜드의 역사가 민족주의 역사라는 일종의 “신화에 예속”되었다고 인식하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객관적 사료 혹은 증거 중심주의에 입각한 수정주의 역사관을 앞세워 일종의 “정신적 해방전쟁”을 시작한 것

이다(Moody 21).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수정주의 역사관은 1960년대 말 국가내분 사태를 겪은 아일랜드인에게 파괴적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민족주의에 회의감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이후 현대 아일랜드 역사연구의 주류가 된다. 그런데 무디의 바람이 현실화 되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수정주의의 내적 모순이 드러난다. 객관성에 근거한 감정적 판단이 배제된 “몰가치의 역사”(value-free history)(Bradshaw 336)를 강조한 수정주의가 자신이 의도와는 반대로 아일랜드 역사연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신조(dogma)로 기능하는 자기모순적인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수정주의는 보편적인 역사법칙을 거부하지만, 정작 “전문가의 목적론이라는 미명하에”(Bradshaw 343) 객관적 근거와 주관의 배제라는 기준을 아일랜드 역사연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스스로 하나의 법칙처럼 기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역사관은 불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신화적 해석을 멈추지 않은 민족주의적 역사관의 비객관성을 비판하지만, 정작 그들도 증거에 대한 해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주관적 평가의 불가피성”(Bradshaw 338)을 피할 수 없었다.

III

보이어스에 따르면 문학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드러나고 사회의 운명이 언젠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지점”에서 정치와 결합한다(Boyers 1).

종종, 이 유형의 교차로는 특히 작가와 비평가들에게 매력적인데, 그들의 최고 수준의 소설들이 그들을 위해 문제적 사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고 독자로 하여금 그 입장과 동일시함으로써 스스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Boyers 1)

이처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문학의 정치는 지배와 피지배 계급 사이의 갈등이 일상화된 피식민지를 배경으로 한 문학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아일랜드처럼 수백 년의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 언어를 비롯한 문화적 요

소들이 식민모국의 것과 큰 맥락에서 차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식민지인이 식민지배에 대해 무감각해지면서 현실에 무기력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없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무기력한 민족의 처지가 이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을 폭로하면서 나아가 방향을 모색하려는 피식민지문학의 자양분으로 기능하면서 문학이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게 유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시인이자 평론가인 딘이 자신에게 낯선 소설을 창작하려고 한 것은 이를 통해 북아일랜드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영국의 식민주의를 폭로하고 이에 저항하는 IRA를 비롯한 가톨릭계 아일랜드인의 활동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는 『어둠 속 읽기』가 출판된 이후 가진 어느 인터뷰에서 “소설은 이야기, 서사를 생산해야 하고,” 이것을 이해하려는 과정을 통해 “독자는 자신이 어느 특정한 지점에 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소설의 공감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의 소설 집필에 있어 이러한 장르적 특성이 고려됐음을 사실상 시인한다(Deane, “Interview” 1997).

이러한 분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 읽기』에서 딘의 정치적 목적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술했다시피 기존의 비평가들이 오인할 만큼 화자의 일인칭 서술이 이 작품을 자신의 자서전적 이야기로 한정해서 이해하도록 강하게 유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독자로 부터 많은 공감을 얻음으로서 소설의 대중성을 충분히 살리고 있다. 문학을 당시에 대한 기록이나 증언을 위한 수단으로 역할을 한정한다면 일인칭의 자전적 소설보다는 삼인칭의 르포르타주나 다큐멘터리적 성격의 작품이 더 효과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딘이 이 서술형식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어둠 속 읽기』를 통해 그가 달성하려는 목적이 단지 북아일랜드의 현실을 기록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래서 그가 소설의 중요한 장르적 특성인 대중성을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독자를 작품 안으로 끌어들여 내용에 공감하도록 유도하는데 유리한 일인칭 화자로 『어둠 속 읽기』의 이야기를 전개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신교도와 가톨릭교도 사이의 끊임없는 보복이 자행되는 데리라는 유형의 교차로를 배경으로 하면서, 일인칭 화자에 의한 자서전적 소설형식으로 이곳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이를 통해 정치적 의도를 성취하는 예술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어둠 속 읽기』에 대한 내적 이해는 이 작품이 일인칭 화자의 자서전적 소설로서 갖는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어둠 속 읽기』는 1945년부터 1971년까지의 기간 동안 작가와 동일인물인 소년화자의 자서전적 이야기가 짧은 단편들로 불규칙적으로 전개된다. 그렇다보니 독자는 잘게 부서진 기억의 파편처럼 매끄럽지 않게 전개되는 소년의 회상을 퍼즐을 맞추듯 이리저리 연결하면서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해야하는 수고를 감수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도 모르게 작품에 몰입하게 된다. 자서전적 소설은 일인칭 화자의 불완전한 기억에 근거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것의 사실유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서전적 소설이 작가들에게 활용되는 것은 이 하위 소설 장르가 사실 전달만이 아니라, 독자의 공감을 얻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전적 소설은 소설에 근본적으로 내재된 허구성을 활용해서 작가 혹은 화자가 갖고 있는 기억의 한계를 오히려 문학적 효과로 대체하고, 작가의 의도나 의견 혹은 메시지를 이 문학 장르의 대중성을 통해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자서전적 소설은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능하고 또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이건(Edward A. Hagan)은 『어둠 속 읽기』에서 “독자는 딘의 화자에 의해 무장해제 당하고 통제 받는다”면서, 이 작품이 소년 화자의 전능함에 이끌리는 독자의 수동적 처지를 경험하게 하는 자전적 소설의 정치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Hagan 40).

한편 자서전적 소설이 갖고 있는 정치성은 아일랜드를 비롯한 피식민지문학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많은 아일랜드 작가들에게 자서전은 피치 못하게 회상과 연관된 대중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연상시킨다. 그것은 개인의 삶이 번번이 그리고 국가의 불안한 삶과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관여되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Regan 233)

이러한 장르적 특성 때문에 독자들은 겉으로는 정치와는 관련 없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를 읽으면서 일인칭 화자 스티븐의 개인사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아일랜드 현실과 이에 대한 그의 입장과 의 만남을 피할 수 없었는지 모른다.. 이처럼 화자의 의식이 변화 혹은 성장해가는 과정이 확인되는 자서전 형식의 글쓰기는 딘의 표현처럼 “영원히 외국적이고 영원히 친숙한 다른 문화의 현존 때문에 그들 자신의 존재의 합법성을 조사하기를 강요받아온 문화들의 강박적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화자의 이야기가 피식민지의 현실과 뒤섞여서 드러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Deane, *The Field* 5). 그래서 아일랜드의 자서전적 글쓰기는 “타자의 힘, 그 가혹하거나 해방적인 에너지를 규정하기 위해서 개인 경험을 통해 자기반성, 역사적 사건과 상황에 대한 재고려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The Field* 380). 『어둠 속 읽기』에서 소년 화자가 특정한 정치적 견해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암시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장르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 작품에 내재된 정치적 특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딘이 필드 데이 활동을 통해 아일랜드에서 자서전이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것의 가치에 주목하고, 또한 이 작품이 “1990년대에 등장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다수의 자서전적 혹은 반-자서전적 아일랜드 작품들 중 하나”(Smyth 133)라는 게리 스미스(Gerry Smyth)의 평가를 고려한다면 이 작품 형식의 기능과 의미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이러한 자서전적 서술에 내재된 특성을 간과한 보이어스는 『어둠 속 읽기』가 특정한 아일랜드인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도덕적 탐구와 관련한 소재를 작품이 끝날 때까지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비정치적이라고 주장한다(Boyers 21-23). 또한 그는 “그것(『어둠 속 읽기』)의 등장인물들의 삶이 정치에 의해 완전히 잠식되는 것을 거부”하는 특징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이 작품의 비정치성을 이야기한다(Boyers 24). 이처럼 화자의 침묵이 이 작품을 비정치적으로 인식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보이어스의 주장은 그의 침묵이 가톨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고 또한 이것이 독자들을 작품세계로 안내하여 이 공동체와 IRA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치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보이스의 주장처럼 소년 화자는 자기 마을의 IRA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외할아버지가 기자시절에 동료 기자의 죽음과 연관된 경찰을 살해하고, 소년의 큰아버지인 에디를 밀고자라는 이유로 살해교사 한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화자는 외할아버지를 증오하거나 혹은 가톨릭계 혹은 IRA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또한 화자는 에디를 포함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자신의 이모부 맥클레니가 진짜 밀고자이고, 그가 미국으로 도피하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그녀를 미워하거나 IRA에 대한 분노를 표

출하지는 않는 등 자신의 정치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이처럼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태도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있는 영국과 신교도 아일랜드인, 그리고 가톨릭 아일랜드인 사이의 적대 관계와 그로 인해 암울한 가톨릭 공동체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기력한 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생존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 프랭크가 자신과 형제 그리고 가족을 위해 그러했듯이 화자는 갈등이 일어나는 두 집단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편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이다. 프랭크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IRA에서 활동하던 형 에디가 공동체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밀고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자, 11살의 나이에 홀로 동생들을 돌보면서 살아간다. 형의 억울한 죽음을 알면서도 공동체를 떠나 살 수 없는 처지였던 그로서는 이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이러한 자세를 유지한다. 사실상 그의 침묵은 공동체에서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자신과 가족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 취한 정치적 행위였던 것이다. 소년 화자는 침묵은 이러한 아버지의 그것을 꼭 답았다.

한편 소년의 침묵은 독자에게 가톨릭 아일랜드인의 처지와 IRA의 행위를 옹호하고 이들의 처한 현실의 이면에 영국의 식민지배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신교도와 가톨릭교도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극심해지고, 이와 비례적으로 IRA의 잔혹성도 더 해 간다. 그렇다보니 이 무장집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약화되어가고, 특히 1972년에 일어난 피의 일요일(Blood Sunday) 이후에는 아일랜드 공화국 사람들마저도 이들에게 반감을 갖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화자의 비정치적인 과거 회상을 통해 북아일랜드에서 소수자로 고립된 가톨릭계 아일랜드인이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참담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그 원인을 그들이 아닌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래서 독자들은 IRA의 행위를 테러가 아닌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피지배 민족의 저항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헤이건의 견해처럼 『어둠 속 읽기』의 독자들은 그들 스스로 “애초에 IRA가 존재하는 이유를 짐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지만, 화자가 유도하는 이 무장집단에 대한 이해와 조우하면서 이들에 대한 평가의 여지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Hagan 45). 그렇다면 중립적으로 보이는 화자의 태도는 가톨릭

아일랜드인과 IRA에 호의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화자는 마치 탐정이 사건을 풀어가듯이 가족사에 얽힌 비밀을 하나 둘 알아가 기 시작하면서,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가톨릭 공동체 전체가 에디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놓치지 않는 불신과 불안이 뒤섞인 상태에 있음을 깨닫는다. 이곳 사람들은 프랭크처럼 지울 수 없는 과거로 현재를 평가받는, 과거에 억눌린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이 공동체에서 버림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침묵에 익숙해지면, 배신을 암시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을 비롯해서 영국과 관련된 모든 개인 및 집단과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화자가 윌리 바(Willi Barr) 일당에게 폭행을 당할 처지를 벗어나려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순찰차에 돌을 던지고, 이로 인해 경찰서에 끌려가자 경찰이 아닌 소년에게 분노하는 그의 어머니의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준다. 당시 그녀는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그가 “벌레들”인 경찰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그를 “가망 없는 놈”이라고 부르면서 강하게 질책한다(102-03). 이러한 그녀의 반응은 공동체에서 터부시되는 경찰과 어떤 형태든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밀고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고, 이 지역의 IRA의 지도자인 그녀 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되어 권위가 상황을 염려해서 나온 것이었다.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가톨릭 공동체는 외부와 단절되면서 고립이 심화되고, 내부적으로는 비밀 결사처럼 서로를 불신하면서 자신에게 침묵만을 강요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영국의 식민지배로 인해 북아일랜드가 탄생하고 데리의 가톨릭계 아일랜드인들이 피지배계층이자 아류시민으로 전락하면서 “이곳에서 자유는 결코 있었던 적이 없고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47). 가톨릭 아일랜드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들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포기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프랭크가 아내에게 에디의 죽음을 사주한 장인에 대해 침묵하고, 그녀도 에디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맥클레니가 미국으로 도망치는데 자신이 도움을 줬다는 사실에 대해 남편에게 말하지 않는 상황은 이곳 사람들의 삶이 정치적 대의에 의해 희생되고 읊아매어 있는지를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가톨릭 아일랜드인의 집단성은 단이 과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단적 특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인은 반식민주의에 입각한 운명 공동체를 획책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단일 대오를 형성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러한 집단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

는 정체와 고립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보니 공동체의 이상과 규율을 의심하거나 혹은 반기를 들 수 있는 개성보다는 이것들을 묵묵히 실천하기 위해 구성원을 요구한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이 아일랜드를 떠난 것은 이러한 아일랜드의 지독한 집단성이 예외적 존재나 변화를 용인하지 않는 아일랜드의 지독한 집단성에 질식되지 않기 위한 탈출이었던 것이다. 캐슬린 하이닝지(Kathleen A. Heininge)도 “아일랜드인 스스로가 전형화에 순응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북아일랜드의 소설가 조지 버밍햄(George Birmingham)도 그들에게 이러한 성향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Heininge 5).

아일랜드 사람들은 . . . 상도를 벗어난 개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형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우리는 분개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존재를 인식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꽤 관대하다. 아일랜드에서는 사람이란 신교도이거나 구교도, 민족주의자거나 친영주의자일 것이다. 그것이 그다지 힘든 일도 아니다. 그는 자신의 우리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는 반드시 양이어야만 한다. 우리는 야생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문필가들은 대체적으로, 천재적인 사람인 경우는 항상 그렇지만, 울타리에 가둬질 수 없는 기괴한 존재이다. (Birmingham 118)

아일랜드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인종, 종교 문화 그리고 정치 이데올로기적 적대관계의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법적 기준에 의한 판단 너머에 존재한다. 아일랜드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고와 문화를 강하게 공유하고 그것을 생활화하면서 살아가야한다.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외부의 그 어떤 평가나 판단 그리고 시선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율과 이해가 곧 법이고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고 또한 자신의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는 유일한 길이 된다. 그래서 『어둠 속 읽기』의 에디처럼 밀고자로 낙인을 찍히는 것은 집단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살인을 비롯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엄격하고 단호하게 단죄되어야 할 위법행위일 수밖에 없고, 소년의 아버지는 배신자의 가족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안고 위축되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어둠 속 읽기』에서 가톨릭계 아일랜드인의 집단성이 표면화되는 것은 여기에 내재한 폭력성과 억압을 폭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영국의 지배에 맞서 싸우는 IRA처럼 북아일랜드의 가톨릭계 정치세력의 활동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공동체의 응원과 동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인지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 집단들의 활동에 대해 평가하거나 선택할 권리는 전혀 없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지지해야만 하는 처지이다. 에디가 밀고자라는 누명을 쓰고 죽고 난 후 화자의 아버지가 평생을 침묵하며 살아야 했던 것도 이러한 공동체의 규율 때문이었다. 또한 형의 억울한 누명을 알았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선뜻 증언해주지 않을 공동체의 상황을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이 사건의 실상을 알고 있더라도 형제들과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를 고려해서 이를 숨겨야만 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가톨릭 공동체의 집단논리 앞에서 IRA에 의한 에디의 살인도 정당화된다. 에디를 가톨릭 공동체의 정점에 위치한 IRA를 위협하는 밀고자라는 이유로 살해한 것은 신교도인들이 자신들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가톨릭교도들을 없애려고 하고, 같은 이유로 IRA가 신교도와 경찰, 영국 군대를 처단하려고 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논리를 간파한 헤이건은 『어둠 속의 읽기』의 3장 첫 번째 이야기 “쥐”(Rats)가 상대를 자신의 생존에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말살하려는 행위가 자행되는 북아일랜드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작품의 “나머지 모든 이야기를 대신”할 수 있는 “은유”로서 기능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Hagan 47). “쥐”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피난처를 점령한 쥐들을 말살하기 위해 화자를 비롯한 아이들과 동네 사람들과 모든 개들이 동원되고, 쥐들을 몰아넣고 죽일 불구덩이로 쓰일 도랑이 준비된다. 또한 이 이야기는 낮에 시작해서 밤까지 계속된 광란의 쥐 퇴치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지만, 화자는 여기에서 살아남아 복수를 다짐하는 쥐들을 상기하면서 그곳에서 실제 일어나는 신교도와 가톨릭교도 사이에 벌어지는 끝없는 복수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77-80). 그래서 가톨릭 공동체에게 IRA에 의한 에디의 죽음은 자신들에 대한 영국과 신교도의 위협이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저항과 복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계기이자, 이와 동시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이 비극에 대한 암묵적인 동조자로 한데 묶는 역할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구성원의 삶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가톨릭 공동체의 규율이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일랜드의 해방과 통일을 내세우는 IRA는 이 규율 너머에 존재하는 집단이다. 에디의 죽음처럼 이들은 민족의 대의

를 위해 싸우는 자신들에게 협력하고 동조하는 것은 아일랜드인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의 수행 유무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공동체의 헌법 기관이자 동시에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곳 공동체의 근원처럼 존재하는 이 무장집단은 어떤 형태의 이해나 평가, 그리고 판단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에 통제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태이다. 화자의 외할아버지이자 데리의 IRA 리더인 도허티 씨(Mr Doherty)는 가톨릭 공동체에서 이들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시켜주는 좋은 사례이다. 젊은 시절 그는 신문사 동료였던 닐 맥러플린(Niel McLaughlin)의 원한을 갚는다는 미명하에 경찰인 빌리 메이혼(Billy Mahon)을 살해하지만 무죄로 풀려났고(25), 이후에는 에디의 살해를 사주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천수를 누리다가 죽는다. 그는 법을 집행하고 수호하는 경찰과 법원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었고, 심지어 신을 대리하는 교회의 권위 밖에 존재하였다. 그래서 영국의 억압과 탄압에 저항하면서 독립과 통일이라는 아일랜드 민족의 대업을 수행하는 그로서는 피치 못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희생으로 피로워 할 죄의식도 신앙심도 없었다.

당신은 그것이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의 무죄에 대한 이야기요? 제기랄. 신부님, 모르시겠어요? 저는 무죄가 아니에요. 저는 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마흔을 죽였고 지금 그가 저 문으로 들어온다면 또 죽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슬픔도 없고 다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있지도 않아요. 동정 따위는 없어요. (25)

그는 신부에게 법적 처벌은 면했지만 자신이 저지른 살인행위의 위법성을 ‘고백’해서 영적 차원에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종교적 차원에서라도 다룰 수 없는 신성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당화한다. 즉 살인은 죄이지만 영국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즉 자기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그의 발언에는 깊게 배어 있는 것이다. 또한 도허티 씨의 이러한 태도는 IRA가 아일랜드 역사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톨릭마저도 정치적 목적에 의해 평가되고 판단되는 수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딘은 두 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끝없는 피의 복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는 켈러한과의 인터뷰에서 신교도인의 살인은 지배와 억압이

라는 정의롭지 못한 목적에서 저질러진 것이지만, 가톨릭교도의 살인은 그들의 부당한 지배와 억압에 저항하려는 정당한 행위 과정에서 빚어진 불상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발언을 통해 사실상 이 상황에 동조하고 있다.

신교도들이 시민권의 지지자이자 동시에 가톨릭 신자들의 억압자라는 존재 사이에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가해야만 했던 압박을 고려한다면 비 가톨릭교도의 살인이 가톨릭교도의 살인보다 더 병리적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았다. (Callaghan 48)

딘은 살인이나 테러를 옹호하지는 않지만 IRA를 비롯한 저항 단체에 의해 발생한 불행한 상황은 저항이라는 억압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과 해방이라는 정당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의도치 않은 결과일 뿐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는 이를 통해 양 진영 모두에 의해 자행된 비극적 상황은 전적으로 부당한 영국의 식민지배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IV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탐정처럼 가족사의 비밀을 쫓던 화자가 찾은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침묵과 가톨릭 아일랜드 공동체의 침묵,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그들의 침묵에 대해 침묵하는 그 자신이었다. 화자는 1945년에 시작된 이야기의 여정이 끝을 맺는 1971년 7월 부분을 화자는 삼촌 리암(Liam)은 물론 누구에게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서른 중반을 훌쩍 넘겼을 나이에도 여전히 가족과 가톨릭 공동체에 얽혀있는 자신을 고백한다 (240). 반면에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던 독자들이 마지막에 맞닥뜨린 것은 화자의 가족사를 통해 가톨릭 공동체의 현재와 이들과 떨어질 수 없는 IRA,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근원으로 제시되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고민하는 그들 자신이다. 그들은 공동체의 비밀에 짓눌려서 삶이 뒤틀리는 이곳 사람들의 삶을 엿보면서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게 되고, 이 문답 과정에서 IRA라는 존재와 이곳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영국의 식민 지배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지게 된다.

그리고 독자들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화자의 아버지 프랭크가 심장마비로 죽은 그 날 밤 가톨릭 공동체에서 영국군의 행동을 통해 얻게 된다. 화자는 아버지가 죽은 날 밤 영국군에 의해 야간통행금지가 선포되었고, 공동체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바리케이트가 불도저에 의해 옮겨지면서 무장한 영국군이 공동체 내부로 진입한 것을 목격한다. 이러한 영국군의 움직임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언급한 “이상한 세계”와 그로 대표되는 “옛 세계”의 질서가 여전히 지속될 것이고, 그로 인해 IRA의 더욱 격렬한 저항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톨릭 공동체의 침묵과 희생 그리고 고립이 더 요구될 것을 암시한다. 이 상황과 맞닥뜨린 독자들은 가톨릭 아일랜드인의 처지와 IRA의 격렬한 저항 이면에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영국의 식민주의가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작품을 통해 딘이 의도한 문학의 정치는 자신의 역할 수행을 완수한다.

(전남대)

인용문헌

- Birmingham, George A. *An Irishman Looks at His World*. Hodder and Stoughton, 1919.
- Boyers, Roberts. "Identity and Diffidence: Seamus Deane." *The Dictator's Dictation: The Politics of Novels and Novelist*. Columbia UP, 2005, pp. 21-28.
- Bradshaw, Brendan. "Nationalism and Historical Scholarship in Modern Ireland." *Irish Historical Studies*, vol. 26, no. 104, 1989, pp. 329-51.
- Callaghan, Dympna, and Seamus Deane. "An Interview with Seamus Deane: University College, Dublin, June 1993." *Social Text*, vol. 38, 1994, pp. 39-50.
- Deane, Seamus. "Heroic Styles: The Tradition of an Idea." *Field Day Pamphlet*, no. 4, Field Day, 1984.
- . Introduction. *Celtic Revivals: Essays in Modern Irish Literature 1880-1980*. Faber and Faber, 1985, pp. 11-17.
- . Introduction. *Nationalism, Colonialism and Literature*, by Terry Eagleton, Fredric Jameson, and Edward W. Said, U of Minnesota P, 1990, pp. 3-22.
- . *Reading in the Dark*. Alfred A. Knopf, 1997.
- . *The Field Day Anthology of Irish Writing*. vol. 1, Field Day, 1991.
- . "The Production of Cultural Space in Irish Writing." *Boundary 2*, vol. 21, no. 3, 1994, pp. 117-44.
- Hagan, Edward Alphonsus. *Goodbye Yeats and O'Neill: Farce in Contemporary Irish and Irish-American Narratives*, vol. 183, Rodopi, 2010.
- Heininge, Kathleen. "The Search for Irishness." *Buffoonery in Irish Drama: Staging Twentieth-Century Post-Colonial Stereotypes*. Peter Lang, 2009, pp. 1-14.
- Lih, Lars T. *Lenin Rediscovered: What is to be done? In Context*. Haymarket Books, 2008.
- Kiberd, Declan. *Inventing Ireland: The Literature of a Modern Nation*. Random House, 1996.

- Moody, Theodore William. "Irish History and Irish Mythology." *Hermathena*, 1978, pp. 6-24.
- New Stateman & Society, "Reading in the Dark—An Interview with Seamus Deane Revisited." *The English & Media Magazine*, no. 36, 1997, vinhanley.com/2015/04/03/reading-in-the-dark-an-interview-with-seamus-deane-revisited/.
- Regan, Stephen. "'Sacred Spaces': Writing Home in Recent Irish Memoirs and Autobiographies (John McGahern's *Memoir*, Hogo Hamilton's *The Speckled People*, Seamus Deane's *Reading in the Dark* and John Walsh's *The Falling Angels*)." *Irish Literature since 1990: Diverse Voices*, edited by Scott Brewster, Scott and Michael Parker, Manchester UP, 2009, pp. 232-49.
- Smyth, Gerry. *Space and the Irish Cultural Imagination*. Palgrave, 2001.
- Whelan, Kevin. "The Revisionist Debate in Ireland." *Boundary 2*, vol. 31, no. 1, 2004, pp. 179-205.

Abstract

Politics of Literature Hidden in
Seamus Deane's *Reading in the Dark*

Myeong-Deok An

On the surface, *Reading in the Dark* looks like a memoir or autobiography of an anonymous speaker narrating his family history through chasing the truth of his eldest uncle Eddie's death. However, this style is a kind of a political fiction which hides the political intention of the writer, Seamus Deane; the style makes readers realize the fact that British colonialism is a fundamental cause of silence, tragedy, and death in an Irish Catholic community in Derry, Northern Ireland. First person narrator plays a role in causing that optical illusion for readers and critics to misunderstand this book as a non-political one. To avoid that kind of illusion, we should not only analyze this book itself, but also consider the role of the writer of this book, who gives clues which help us discover a hidden or veiled function of the book.

The hidden function of *Reading in the Dark* is a propaganda for Irish Catholics' reality in Northern Ireland and justification of this ethnic group's resistance against British colonialism like the IRA. Deane, a poet, a literary critic, and one of Irish Catholics from Northern Ireland, has been trying to build the identity of Ireland based on Irish nationalism. His main concern is the independence of Ireland from British colonialism and the reunific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Ireland and Northern Ireland. To achieve this, he uses Irish literature to identify who the Irish are and what Irish literature is. In addition, it is a tool to give an Irish Catholic common group memory and strongly criticize revisionism as a cause of weakening Irish nationalism. The first person narrator in *Reading in the Dark* tries to make readers witness lots of tragic happenings caused by British colonialism among Irish

Catholics through his narration, for they would probably empathize the Irish's present through this planned meeting at least. Thus, *Reading in the Dark* is a work that hides a political function Deane wants to get from Irish literature.

■ **Key words** : Seamus Deane, *Reading in the Dark*, Irish nationalism, politics of literature, revisionism, first person narrator, silence
(셰이머스 딘, 『어둠 속 읽기』, 아일랜드, 민족주의, 수정주의, 문학의 정치, 일인칭 화자, 침묵)

논문접수: 2019년 5월 30일

논문심사: 2019년 6월 16일

게재확정: 2019년 6월 24일